



두바이 디지털 열풍
원가·수급 불안에
‘제2의 탕후루’ 될까
L1



Life

삼바에피스
매출 1.6조 달성
바이오시밀러 효과
L2



인권 존중, 인재 양성... ‘사람’ 기준값으로 미래 설계하다



LG CNS

LG CNS가 인적자본과 정보보안, 안전보건, 사회공헌을 중심으로 한 사회(S) 부문 ESG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디지털 전환을 넘어 AX(인공지능 전환) 기업으로의 도약 과정에서 ‘사람’과 ‘신뢰’를 핵심 축으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현장 중심 CNS, 피플 케어 프로그램

LG CNS는 ‘인권경영’을 ESG 전략의 핵심 축으로 삼고 조직 전반의 제도 정비와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단순 선언 수준을 넘어 근로환경, 차별 방지, 일·가정 양립까지 포괄하는 구조적 관리에 방점을 찍었다.

LG CNS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해 인권경영을 사회(S) 부문의 주요 과제로 제시하고, 임직원과 협력사 전반에 적용되는 인권 원칙을 명확히 했다. 성별, 연령, 학력, 국적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안전하고 존중받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다.

사람·신뢰 중심 사회부문 ESG 강화
근로환경, 차별방지 등 조직제도 정비

안전하고 존중받는 근무환경 조성
협력사 인권관리·동반성장 프로그램
인권경영, 글로벌 사업 경쟁력 될 것

특히 일·가정 양립과 근로권 보호에 초점을 맞췄다. 배우자 출산휴가, 임신·육아 기간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운영하며, 육아휴직 제도 역시 안정적으로 정착시켰다. IT 업계 전반에서 과제로 지적돼 온 장시간 근로 관행과 경력 단절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도 정례화했다.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예방 교육을 통해 조직 문화 차원의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으며, 인권 침해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강제노동, 아동노동, 정치적 거부 등 인권 관련 주요 리스크 항목에서는 ‘해당 사항 없음’을 유지하고 있다. 내부 통제와 점검 체계를 통해 법·제도적 기준을 충족하는 수준을 넘어, 사전 예방 중심의 관리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협력사와 공급망을 포함한 인권 관리도 병행하고 있다. LG CNS는 협력회사와의 거래 과정에서 인권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준을 적용하고,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통해 공급망 전반의 지속가능성을 관리하고 있다. 이는 글로벌 IT 서비스 시장에서 요구되는 ESG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조치



1 LG CNS의 여성리더의 차기 커리어 개발과 네트워킹을 독려하고 리더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모임인 여성 리더 포럼.
2 LG CNS는 IT 역량을 심분 살려 디지털 격차 해소와 지역사회 기여에 나서고 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LG CNS AI 지니어스 아카데미에 참석 중인 어린이의 모습.
3 LG CNS 이승찬 디지털AX담당 상무(왼쪽 두 번째)가 11일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아시아·오세아니아 정보산업기구(ASOCIO) 어워드 2025에서 ESG 어워드를 수상하는 모습. /LG CNS

로 풀이된다.

LG CNS는 인권경영을 단기 성과가 아닌 장기 경쟁력의 기반으로 보고 있다. 기술 경쟁력 못지않게 조직 내부의 신뢰와 안정성이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인권을 중심으로 경영 체계가 향후 글로벌 사업 확장 과정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계산이다.

◆AX역량과 AI기술로 미래 인재 양성 기여

LG CNS는 사회공헌 활동에서 IT 역량을 심분 살려 디지털 격차 해소와 지역사회 기여에 나서고 있다. 단순 기부 중심의 사회공헌에서 벗어나, 기술 기반의 교육·역량 지원을 중심으로 한 구조적 접근이 특징이다.

LG CNS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해 사회공헌을 사회(S) 부문의 핵심 과제 중 하

나로 제시했다. 특히 청소년과 교육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IT 교육 지원에 집중하며, 기업의 핵심 사업 역량을 사회적 가치 창출과 연결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대표적인 활동은 청소년 대상 AI·IT 교육 프로그램이다. LG CNS는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주제로 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미래 산업 환경에 필요한 기초 역량을 조기에 체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일반 학교뿐 아니라 특수학교와 도서벽지 학교를 대상으로 한 교육 지원도 병행해 교육 접근성 격차 완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역사회 기여 역시 사회공헌의 주요 축이다. IT 인프라와 디지털 솔루션을 기반으로 지역사회와의 협력 사업을 추진하며, 단

발성 행사보다는 지속적인 관계 형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협력회사와의 동반성장도 사회공헌 범주에 포함됐다. LG CNS는 협력사 대상 교육과 채용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공급망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는 중소 협력사의 인력 확보와 역량 강화라는 현실적인 과제를 지원하는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산업 생태계 전반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LG CNS는 사회공헌 활동을 ESG 평가 대응 차원의 부수적 요소가 아닌, 기업 지속가능성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로 보고 있다. 기술을 가진 IT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단순한 재정 지원이 아니라, 기술 자체를 사회 문제 해결에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있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청소년·교육취약계층 대상 IT교육
지역과 협력... 사회문제 해결 앞장

자체 개발한 ‘LG ESG 인텔리전스’
ASOCIO 어워드 ‘ESG 부문’ 수상
체계적·효율적 ESG 목표 달성 지원

◆국내외에서 인정받은 LG CNS의 ESG 활동

LG CNS의 노력은 성과로도 이어지고 있다. LG CNS는 지난해 11월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아시아·오세아니아 정보산업기구(ASOCIO) 어워드 2025’에서 ‘ESG 어워드’를 수상했다.

특히 LG CNS는 자체 개발한 ‘LG ESG 인텔리전스’ 플랫폼을 통해 기업의 ESG 데이터를 통합하고 경영 의사결정에 필요한 기능을 제공해 신뢰성과 편의성, 확장성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LG ESG 인텔리전스 플랫폼은 기업이 ESG 목표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ESG 데이터를 수집·분석하고, 탄소배출량과 에너지 사용량, 사회적 영향도, 거버넌스 지표 등 주요 성과를 정량화 한다. 정량화된 데이터를 분석해 기업 맞춤형 정책과 컴플라이언스 준수를 위한 전략 수립, ESG 보고서 작성 등을 지원한다. LG CNS는 플랫폼을 통해 데이터 신뢰성을 확보해 ESG 성과 지표와 리스크를 투명하게 평가·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LG CNS 이승찬 디지털AX담당 상무는 “ESG 데이터 통합 관리와 분석, 예측 기술과 다양한 산업에 특화된 ESG 운영 역량을 확보해 기업고객들의 ESG 경영 디지털 전환을 돕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메트로 한줄뉴스



▲‘2연패 도전’ LG 염경엽 감독 “캠프 키워드는 기본기 강화”
/사진 뉴시스
▲프로야구 팬 성향 조사 분석...82% “피치클러 등 제도 변화 긍정적”

▲사라진 우승 영광...KIA 양현종 “8위 추락, 반성하고 책임져야”
▲‘LA 공항 억류’ 이정후 “며칠 동안 정신없었다...잘 해결돼 다행”

▲‘승부수 통했다’ 피겨 차준환, 4대륙 선수권대회 은메달... 1위와 0.11점 차이
▲밀라노 올림픽 한국 첫 금메달 주인공, 950만 원 상당 시계 받는다